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일본이 향토 음식을 파는 방식

규슈는 일본열도를 이루는 4개의 큰 섬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다. 면적은 한국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인구는 1300만 명 정도 된다.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고대로부터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역사는 묘하게 반복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규슈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부상했다. 지리적 인접성, 다양한 항공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풍부한 관광자원, 편리한 관광 인프라 등 규슈는 단기 여행 위주의 한국인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전통과 지역성이 잘 보존되고 계승되는 일본에서도 규슈는 특히 인상적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도쿄나 오사카의 변방에 위치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후쿠오카·가고시마·나가사키 등 몇몇 거점 도시를 제외하고는 농업과 어업이 여전히 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규슈와 한반도 간의 음식 교류의 흔적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100여 차례 이상 규슈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향토 음식을 다루는 일본인의 매우 독특한 전략 하나를 발견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그 전략의 핵심은 집요함이다.

규슈에는 우리의 광역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일곱 개의 현이 있다. 각 현에는 그 지역의 환경과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 있기 마련이다. 후쿠오

카 현에는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전래된 '고춧가루로 양념한 명란젓'인 '멘타이코', 사가 현에는 현해탄에서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사용해서 만두처럼 빛은 '이카쇼마이', 구마모토 현에는 연근 구멍을 된장으로 겨자로 채우고 울금 가루를 섞은 튀김옷을 입혀 튀겨 낸 '카라시렌콘', 오이타 현에는 토종닭을 특유의 양념에 절여 치킨처럼 튀겨 낸 '가이라이게', 나가사키 현에는 중국식 소면을 튀겨 짬뽕 소스를 뿌려 먹는 '사라 우동', 가고시마 현에는 흰 쌀 생선을 으개 단맛이 강한 정주로 간을 해서 튀겨 낸 '사츠마이게', 미야자키 현에는 두부와 오이 등을 곁들인 차가운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아 먹는 '히야지루'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토 음식은 단순히 먹는다는 경험을 넘어 지역의 풍토·역사·전통을 이해하는 요체다. 음식 그 자체로 중요한 관광 콘텐츠이자 만만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일본이 향토 음식을 알리는 방식에는 보편성을 뛰어넘는 집요함이 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호텔의 조식은 대부분 뷔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호텔의 뷔페는 크게 양식과 화식(일본식)으로 나뉘어 있다. 화식은

일본인이 아침 식사 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로 구성된다. 밥과 된장국을 기본으로 야채 절임, 생선구이, 낫토, 계란말이, 두부, 김 등이다. 어느 지역 어느 호텔을 가건 이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향토 음식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음식에 대한 설명과 먹는 방식도 친절하게 밝히고 있다. 후쿠오카 현에 있는 호텔에는 멘타이코가, 구마모토 현에 있는 호텔에는 카라시렌콘이 반드시 나오는 식이다. 간밤에 어디 멀리서 납치되어 왔다고 한들 호텔의 조식만 보면 자신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처음에는 내가 묵었던 호텔의 기발한 아이디어쯤으로 생각했다.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정책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규슈 전역을 돌아보고 셀 수 없이 다양한 호텔에서 묵고 나서야 그것이 특정 호텔 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식이 아니라 당연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도 궁금해서 일본의 담당 공무원에게 혹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그런 건 없다고 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표정이었다.

비단 호텔 조식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어느 곳을 가건 그 지역의 향토 음식을 반드시 먹고, 사게 만든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촘촘한 그물을 쳐 놓고 관광객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돌아가는 식이다. 그물에 걸린 관광객은 저도 모르게 향토 음식을 먹게 되고, SNS를 통해 먹은 걸 자랑하게 되고, 선물로 사게 된다. 덕분에 향토 음식은 지역의 관광산업에서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차지한다.

관광이란 무엇일(What)을 팔 것인지보다, 어떻게(How) 팔 것인지를 고민하는 스토리텔링이다. 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주 함정에 빠진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지 이야기(스토리)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만 열심인 경우가 많다. 이야기가 그럴듯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야기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향토 음식을 먹도록 유인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향토 음식의 유래를 따지거나 스토리를 개발하는 대신 관광객에게 집요할 정도로 먹기를 권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향토 음식에 애정을 가지고 즐겨 먹는다. 결국 관광산업에서 향토 음식의 전략은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서 오래 전부터 먹어 왔고 지금도 즐겨 먹는 것을 팔아야 한다. 향토 음식은 존재 자체가 이야기이고 먹음으로써 이야기가 완성되는 독특한 서사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여성의 남모르는 고민, 탈모



정진욱 더모헤어플란트 미지예피부과 원장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왔다. 결실의 계절이 되었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은 가을이 반갑지만은 않다. 탈모는 그동안 대를 이어 찾아오는 질환으로 중년 남성들만의 고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병원을 찾는 증상이 됐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70개 정도가 빠지고 그만큼 다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만일 100개가 빠지고 70개만 새로 올라온다면 하루에 30개씩 줄어들게 된다.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거나 가늘어지면서 숄털로 변할 수도 있는데, 질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져도 탈모증이라고 한다. 여성 탈모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흉터로 인해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두피 전체적으로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원형 탈모증은 동전모양으로 나타난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군데만 있는 경우도 있고, 탈모부위가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두피 전체가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이 빠지기까지 한다. 초기에는 바르는 약물이나 탈모부위 피부에 직접 주사치료를 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경우는 먹는 부신피질호르몬이나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이 사용되기도 한다.

반흔성 탈모는 외상에 의한 흉터가 원인이다. 머리에 심한 질환이나 상처, 수술 등의 결과로 모낭이 손상돼 탈모증이 발생한다. 약물로는 치료가 힘들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치료는 모발이식 수술이다. 흉터 부위에도 이식한 모발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흉터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나 흉터 부위에 의학적인 두피 문신으로도 흉터를 감출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의 이마 위 머리카락이 없어져 환하게 피부가 노출되는 것은 여성형 탈모증이다.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탈모증이다. 이마가 넓어지거나 M자로 탈모가 일어나는 남성형 탈모증과 비슷하게 유전성 탈모증이다. 대부분은 건강상

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유전과 호르몬, 노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탈모증이 확대되고 있다. 동물성 위주의 식생활과 경제활동 참여 확장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여성형 탈모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초기에 관심을 갖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모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도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탈모가 넓게 진행된 경우는 모발성분의 영양제나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물리치료로 의학적인 두피 관리 치료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탈모가 심하거나 머리스타일에 걱정이 많은 경우는 모발이식이 필요하다.

의학적인 두피관리는 단순한 두피 마사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물이나 의료용 기구를 이용하는 탈모치료법이다. 탈모로 인해 약해진 모낭 세포를 자극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억제하는 치료이다. 전자기장을 이용한 헤어샴푸와 특수한 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나 빛을 이용한 저출력 광선 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모낭 주사는 자기의 혈액을 이용한 치료로 세포 성장인자와 줄기세포가 풍부한 부분을 추출해 모낭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로 반응이 좋은 치료이다.

모발이식 수술은 머리카락이 부족한 부위에 직접 모발을 심어주기 때문에 증

모로 인해 미용 효과가 탁월하다. 모발이식 시술은 건강하고 탈모가 안 되는 모낭을 채취해 필요 부분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피부를 절개하는 절개식과 절개를 할 필요가 없이 모낭을 하나씩 뽑아주는 시술인 비절개법이 있다. 요즘 환자분들이 더 선호하는 방법은 비절개 방식으로 통증이 적고 흉터가 덜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공기능과 로봇기술의 발달로 힘입어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에 로봇이 이용되고 있다. 로봇 모발이식술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에 대한 환자나 의사의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정확하게 모낭을 채취할 수 있고 수술의 절개가 일정하며 수술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조직의 손상도 적어서 회복도 빠르며, 1시간에 2000 모발의 추출이 가능하다.

탈모는 발병 초기에 치료해 모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탈모의 초기 증상을 가볍게 생각해 증상이 많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일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탈모도 증상의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치료 후에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탈모가 의심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피부과 전문병원을 찾아서 상담받는 것이 좋겠다.

기고

전남 초등 신규교사 타 지역 유출 막으려면



장석웅 전남교육포럼 혁신과 미래 대표

초등교육을 방문해 열심히 생활하는 젊은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서면서 “내년에 또 봐요.” 인사를 건네자 “내년에는 이곳에 없을지도 몰라요. 임용고시 준비합니다”라며 웃는다. “아, 그러세요...”

2017학년도 전남교육청 초등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340명이었으나 250명이 응시하여 210여명을 선발하였다. 3년 연속 미달이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과 충남, 충북, 강원 역시 미달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이나 초등교사가 부족한 판에 광주나 수도권 등 타 지역 임용고시를 통해 현지 초등교사 109명(2014년

160명, 2015년 107명)이 전남을 떠났다.

깨진 독에 물붓기 격이다. 전남에 발령받아 교육 경력을 쌓고 다른 교사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때쯤, 타 지역에 임용고시를 봐서 옮겨가는 젊은 초등교사가 해마다 100명을 넘는 현실은 전남교육의 큰 손실이다. “연수, 워크숍 등 시간과 돈은 전남이 다 내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갯과 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전국 수험생들에게 회자되는 말이다. 전남·북, 충남·북, 강원 등을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 응시하면 합격은 보장되고,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에서 임용고시를 대비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임용고시에 유리하다고 한다. 몇 년 공부하면 광주나 수도권, 세종시 등으로 갈 기회가 생길 터이니 ‘갯과 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하지만, 경력 교사들의 유출로 수년째 신규 교사들의 실습장(심한 표현이지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남, 진도, 고흥 등 농어촌지역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역 가산점’ 제도를 두고 있다. 광주교대 졸업생이 전남에 응시할 경우 3점의 가산점을 준다. 타 교대 출신이나 현직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타 지역 교육대 출신의 전남지역을 어렵게 하였고 3점 정도의 불이익은 현직 교사의 타 지역 응시를 막을 수 없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지역가산점이 6점이 3점으로 줄어 들면서 유출 인원이 두 배로 늘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 가산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는 6점, 타 시도 교대 졸업자에게는 3점, 현직교사에게는 0점이 다.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취한 결정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관련 규칙을 개정할 때 보완할 점이 있다. 첫째는 현직 교사뿐 아니라 합격 후 임용 대기자에게도 지역 가산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지역 가산점을 최종 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임용 관

련규칙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1차 시험 점수에서 지역 가산점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지역 가산점까지 포함하여 환산해야 한다.

광주교대 수시 전형에 전남반이 있다. 전남교육감(학교장) 추천으로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다. 현재 35명을 뽑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역 인재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강원교대는 72명을 뽑고 있고 진주교대는 105명을 뽑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터키의 오르한 파묵은 “자기 도시를 혐오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했다. 지역에 터를 잡고 애정 어린 열정으로 그 지역 2세들을 길러내는 일은 교사의 오랜 소망이다.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당연한 이치로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전남의 아이들 이, 열정과 전문성으로 가득 찬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기 기원한다.

社說

아파트 분양 경쟁 치열 투기세력 때문이라니

광주는 대표적인 ‘아파트 도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주택 49만5000 호 가운데 아파트는 38만5000 호로 77.8%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60.1%)보다 17.7%나 높은 수치다.

광주의 아파트 비중이 높아진 것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공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땐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개발 수익을 노리며 고층 아파트 건설에 치중해 온 것이다. 더욱이 향후 도시 정비 사업에 따라 6만 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7만 호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숲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출산과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난해 광주에 공급된 아파트는 2만여 세대, 올해는 1만5000 세대로 평년의 1만 세대를 훌쩍 넘어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분양가는 매년 오

르고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 치솟은 아파트 값에 정착 실수요자들은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해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외지 투기 세력들을 지목한다.

지난 2015년 평당 분양가 1000만 원을 처음 넘어선 남구의 4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는 입주 시점인 올해 초 갑자기 300세대에 육박하는 물량이 전세로 나왔다. 누군가가 이를 사들였다가 전세로 풀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는 많아야 4분의 1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파트 도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별 구역의 개발 수익만을 우선하는 데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울리며 분양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와 엄정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재활 병원 부족에 애타는 부모들

광주 전남 지역에도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많지만 치료받을 곳이 부족해 수도권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 아동들은 조기 출산으로 뇌에 손상을 입거나 성장 과정의 사고 등으로 신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도 10년 이상 꾸준해야 효과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에는 아동 재활 전문 병원이 없는 데다 그나마 아동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장애 어린이는 광주 1327명, 전남 1761명 등 총 3088명에 달한다. 그러나 어린이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은 다섯 곳에 불과한 데다, 이들 병원의 총 병상 개수도 47개밖에 되지 않아 재활 치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은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을

찾지만 치료비·교통비·숙식비를 포함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탓에 원정 치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경제적 여력이 있어도 4주 정도를 치료받으면 퇴원해야 하고, 재입원해 치료를 받으려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장애 어린이의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이 적은 것은 낮은 치료 수가 등으로 경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장애 어린이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우선 오는 26일 개원하는 전남대병원 어린이 전문 병원에 소아재활치료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또 지역 종합병원들도 별도의 병상이나 재활치료과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어린이 재활 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아재활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p>노벨상을 발표할 때쯤이면 또 하나의 상이 주목을 받는다. 1991년 제정한 ‘이그노벨상’(Ig Nobel Prize)이다.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의 ‘이그노블’(ignoble)과 ‘노벨’(Nobel)의 합성어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p> <p>미국 유머 과학잡지 ‘기발한 연구 연감’이 제정한 수상자의 업적은 ‘발의 약칙의 합성 과정’(의학상), ‘육설 시 고통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평화상) 등 상계정의 취지 그대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업적’이다. 약 3000쌍을 합동 결혼 시킨 문선명 통일교 교주는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p> <p>지난 2016년 수상 목록에선 생물학상 수상자가 눈에 띄었다. 알프스 산속에서 염소처럼 살아 보기 위해 염소 다리 유사한 보철물까지 만들어 착용하고 사흘을 보낸 영국 남자였다. 이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염소가 되려 한 걸까.</p> <p>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아쉬웠던 차 올 초 그의 체험담을 담은 책 ‘염소가 된 인간 -나는 어떻게 인간의 살을 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책세상 간)가 출간됐다. ‘질나가담’ 영국 디자이너</p>	<p>토마스 트웨이츠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슬럼프에 빠진 이후 인간으로 사는 건 너무 피곤하다며 근심·후회·스트레스가 없는 염소가 돼 살아 보기로 하고 실험에 옮겼다.</p> <p>지난 4일 미리 돌리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바로 그 ‘염소 인간’을 만나 짹짹 놀랐다. 전시에서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그가 신경과학자, 동물행동학자, 수의사, 의수족 제작자 등에게 자문해서 제작하고 실제 사용했던 3개의 장치 대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업적’이다. 약 3000쌍을 합동 결혼 시킨 문선명 통일교 교주는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p> <p>너무 궁급했던 ‘살물’을 보니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낸 그의 엉뚱함이 더욱 대단해 보였다. ‘네 발로 걷고, 풀을 뜯어 먹으며 염소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하는 인간이라... 우리가 직접 그처럼 염소가 돼 볼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기록한 ‘염소 작품’을 통해 간접 체험은 가능하다.</p> <p>‘염소 인간’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흥미로운 자극을 줄 것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린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p>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